

# numbers 제 123호



## 주요 내용

2021.12.10

### 1. 이번 주 주제 : [대한민국 치매 실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꼴(11%) 치매 환자!

###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 [한국 노인의 힘겨운 삶]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 3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 그만큼 한국 노인의 삶 힘겨워!

#### -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교]

전체기업 중 0.9%의 대기업이 전체 기업 이익의 75%를 가져간다!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http://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 기독교 통계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꼴(11%) 치매 환자!

2019년 <눈이 부시게>에서 연기자 김혜자 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연기한 이 드라마는 특별했다. 치매를 바라보는 이의 시선이 아닌 치매 환자의 시선에서 극을 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극의 마지막 김혜자 씨의 내레이션이 많은 시청자를 울렸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치매, '영혼을 갇아 먹는 질환'이라고 까지 불린다. 그래서일까, 더 공포스럽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까마득히 사라지는 것은 마치 죽음 그 자체와 비슷해 보인다. 죽음은 내 존재가 없어지더라도 하겠지만, 치매는 나는 존재하지만 나를 내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다.

또 한 가지 두려운 이유는 나도 '치매'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즉 누구에게나 언젠가 다가올 수 있다는 보편성 때문이다. 게다가 아직까지 보족한 치료제가 없다는 것도 두려운 이유 중 하나다.

이번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123호에서는 치매 통계와 예방에 대한 데이터를 다루었다. 치매가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중앙치매센터의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10가족 중 1가족은 치매환자가 있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 중 치매 환자 또는 그 가족이 교회 내 존재한다. 그들을 향한 돌봄의 손길은 교회가 해야 할 사역 중 하나 일 것이다. 이 보고서가 지역 사회와 연계해 돌봄 사역의 장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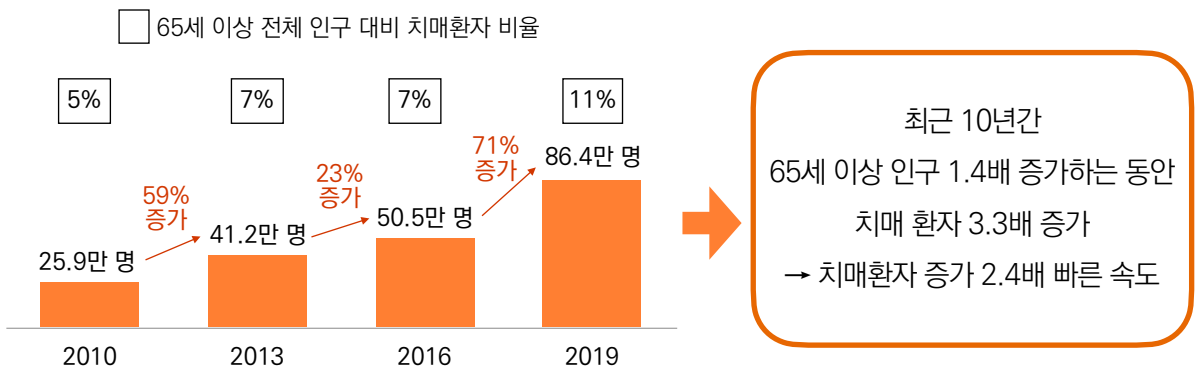
1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꼴(11%) 치매 환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0'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약 772만 명 중 치매 상병자는 86만 명으로 11% 수준이었다.
  - 2010년 이후 2019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배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치매 상병자는 3.3배 늘어나 치매 상병자가 2.4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 치매상병자 : 의료 기관에서 치매 진단 및 치매 진료를 받은 환자를 말함, 이하 본 보고서에서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치매상병자'를 '치매환자'로 표기함

[그림] 65세 이상 치매 환자(상병자) 수(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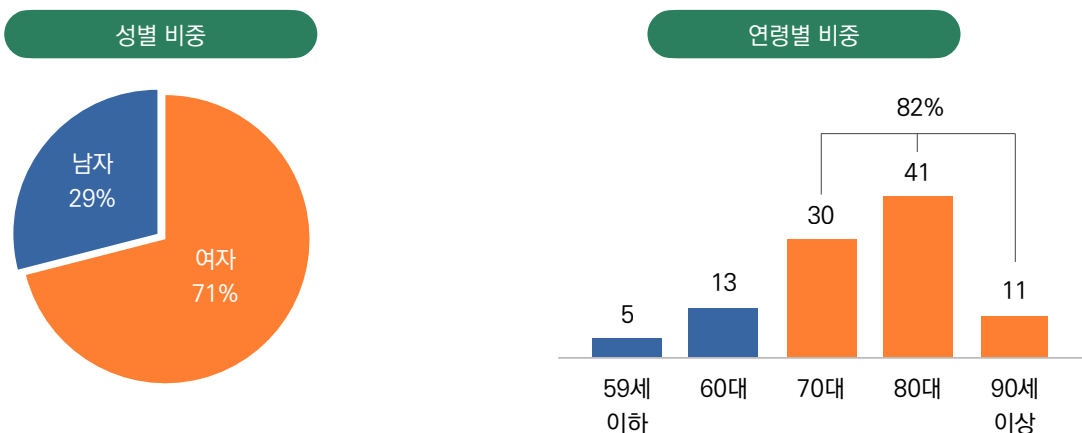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0', 2021.04.15. (전국 치매상병자수 현황 2010-2019,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 ● 치매 환자, '여성'이 71%, 70세 이상이 전체의 82% 차지!

- 전체 치매 환자 수(40세 이상)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29%, 여성 71%로 7:3 비율로 여성이 훨씬 많다.
- 연령별로는 '80대'가 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0대'가 30% 등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70대 이상이 8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019년 기준 성별 연령별 치매 환자 수(40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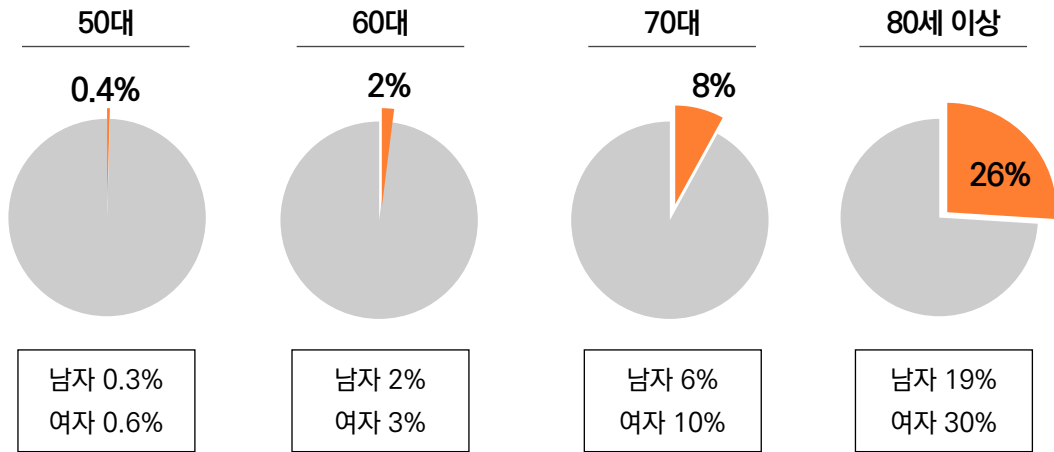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0', 2021.04.15. (전국 치매상병자수 현황 2010-2019,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 ● 80세 이상 고령층, 4명 중 1명 치매!

- 60대까지는 치매환자가 2% 이하로 매우 미미하지만, 70대부터 높아지기 시작해 80대에 들어서면 26%까지 치솟는다.
- 80대 이상 여자의 경우 10명 중 3명 꼴(30%)로 치매환자이다.

[그림] 연령별 치매 환자 분포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0', 2021.04.15. (전국 치매성병자수 현황 2010-2019,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행정 자치부의 2019년 12월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연령별 총 인구 수를 치매 환자 수로 나누어 재산출함. (연령별 치매 환자수 / 연령별 총 인구수 X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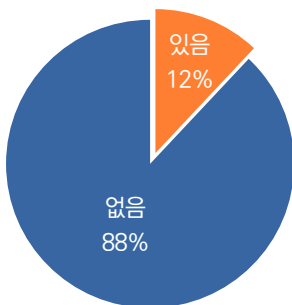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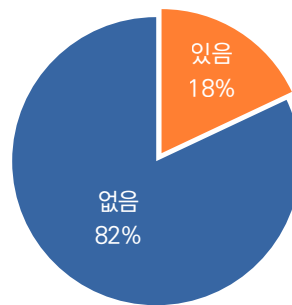
## 우리나라 10가족 중 1가족 이상, 치매 환자 있어!

-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다는 응답에는 12%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10가족 중 1가족 이상에게서 치매 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가족뿐 아니라 가까운 친척까지 확대하면 치매환자 비율은 18%까지 늘어난다.

[그림] 가족 중 치매 환자 유무



[그림]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 중 치매 환자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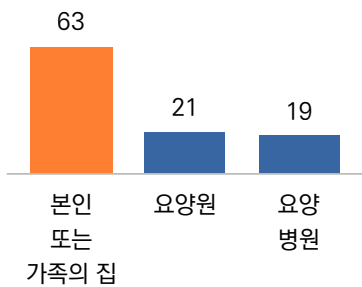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치매 관련 인식조사', 2019.05.20.(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2019.05.15.-19)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여론조사 보고서' 2029.9(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중 가족 또는 친인척 중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 200명, 전화면접조사, 2019.8.27.-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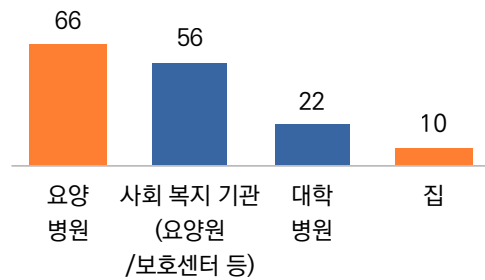
## ● 치매 환자가 있는 장소, '집' 63%

-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 중 치매환자가 있는 응답자에게 치매 환자가 어디 있는지 질문한 결과, '집'이 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요양원' 21%, '요양 병원' 1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시설보다는 직접 살고 있는 '집'이 훨씬 높았다.
- 본인이 치매 진단을 받을 경우 치매 치료를 어디서 받고 싶는지 질문했는데, '요양 병원'이 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기관(요양원, 보호센터)' 56%, '대학 병원' 22% 순이었으며 '집'은 10%로 매우 낮았다. 그만큼 자신의 치매 발병 시 집(가족)에 피해를 덜 주고 싶은 마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치매환자가 있는 장소 (%)  
(가족 또는 친인척 중 치매환자가 있는 경우)



[그림] 본인이 치매 진단을 받을 경우 치료 희망 기관 (중복 응답)\*\* (%)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여론조사 보고서' 2019.9(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중 가족 또는 친인척 중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 200명, 전화면접조사, 2019.8.27.-9.2)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치매 관련 인식조사', 2019.05.20.(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2019.05.1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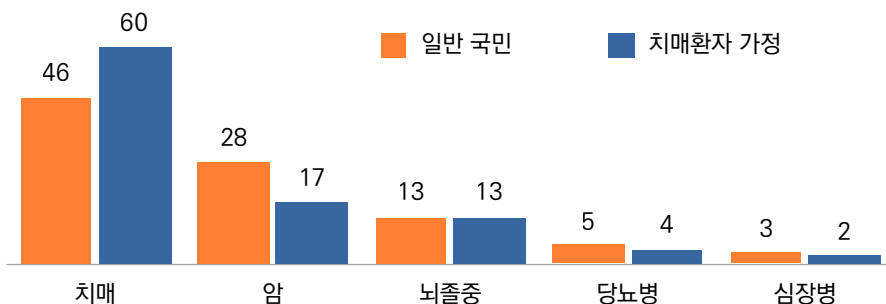
### 3



## 가장 두려운 질환, '치매'가 1위!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노인 질병과 관련된 치매, 암, 뇌졸중, 당뇨병, 심장병 등 5가지를 제시하고 가장 두려운 질환이 무엇인지 질문했는데, '치매' 46%, '암' 28%, '뇌졸중' 13% 등의 순으로 치매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중 치매 환자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치매' 60%, '암' 17%, '뇌졸중' 13% 등의 순으로 응답해 '치매' 응답률이 14%p나 더 높았다.

[그림] 가장 두려운 질환 (일반 국민 vs 치매 환자 있는 가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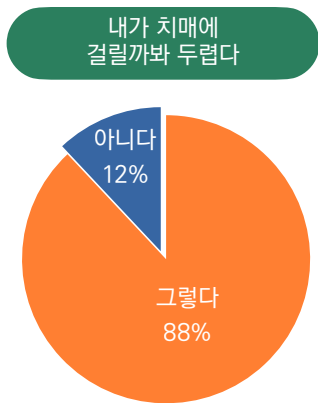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여론조사 보고서' 2019.9(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 친인척 중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 200명, 전화면접조사, 리서치앤리서치, 2019.8.27.-9.2)

## ● 50대 이상 장노년층의 절대 다수, ‘내가 치매에 걸릴까 봐 두렵다’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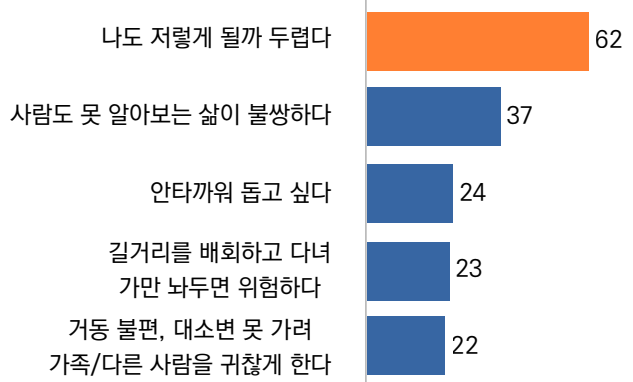
- 50대 이상 장노년층의 치매와 관련 인식을 살펴보면, 대다수(88%)가 ‘자신이 치매환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변에서 치매환자를 보면 ‘나도 저렇게 될까 두렵다’가 62%로 가장 높아 치매를 자신에게 도래할 미래의 병으로 인식하는 50대 이상 장노년층이 절반 이상이었다.

[그림] 자신의 치매 발병 인식(50대 이상 장노년층)



[그림] 주변의 치매 환자를 볼 때 드는 느낌

(50대 이상 장노년층, 상위 5위, 중복 응답)



\*자료 출처 : 라이나생명전성기재단, ‘대한민국 5060 치매 인식도’, 2020.11.16(전국 50세 이상 남녀 1,160명, 모바일조사/서베이업, 오픈 서베이, 2020.10.13.-30)  
<https://www.junsungki.com/magazine/post-detail.do?id=3301&group=TR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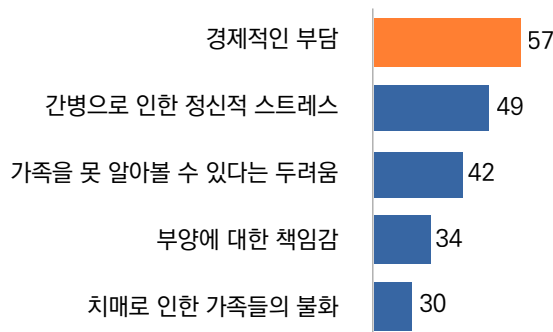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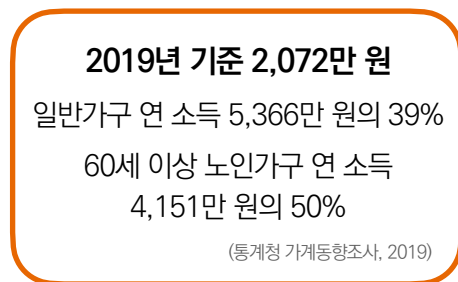
## 치매 환자/가족의 가장 염려 사항, ‘경제적 부담’ 57%로 가장 높아!

- 가족이나 본인에게 치매 진단이 내릴 경우, 염려되는 점으로 ‘경제적 부담’이 5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간병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49%, ‘가족을 못 알아볼 수도 있다는 두려움’ 42% 등의 순이었다.
- 실제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으로는 2019년 기준 ‘2,072만 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19년 4분기 월소득 기준으로 연간 가구 소득을 산출한 5,366만 원의 39%, 60세 이상 노인 가구의 연소득인 4,151만 원의 50%수준이다. 치매 환자가 생길 경우 가계에 매우 큰 부담이 되는 비용이다.

[그림] 가족 또는 본인의 치매 진단 시 염려되는 점 (중복응답, 상위 5위, %)



[그림]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치매 관련 인식조사’, 2019.05.20.(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2019.05.1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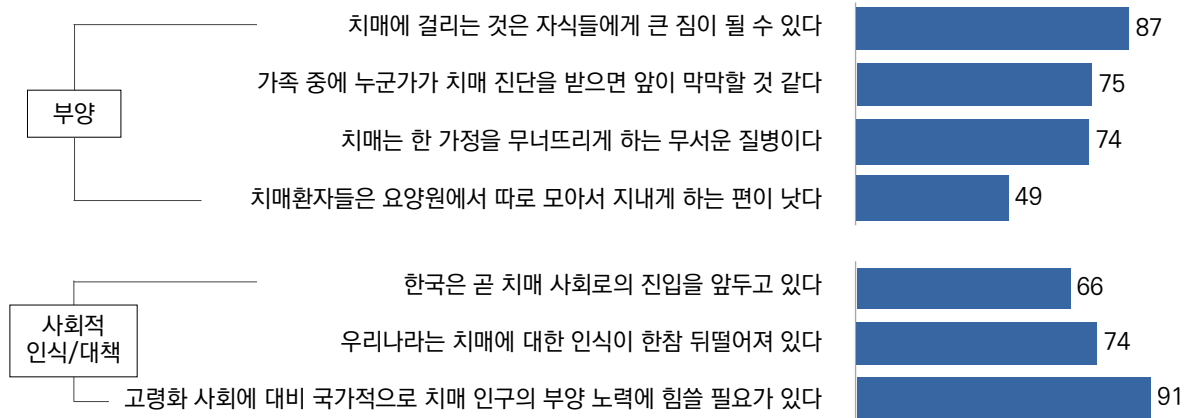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0’, 2021.04.16.

## ● 치매에 걸리는 것은 자식들에게 큰 짐이다 87%

- 한국인들은 치매에 대해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질병(74%)이라는 인식이 높으며, 치매에 걸리면 자식들에게 큰 짐이 될 것(87%)이라는 높은 부담감을 지니고 있다.
- 또 응답자의 3명 중 2명가량(66%)이 한국사회가 곧 '치매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부양책 마련이 필요하다(91%)는 인식이 높다.

[그림] 한국사회에서의 치매 관련 인식 1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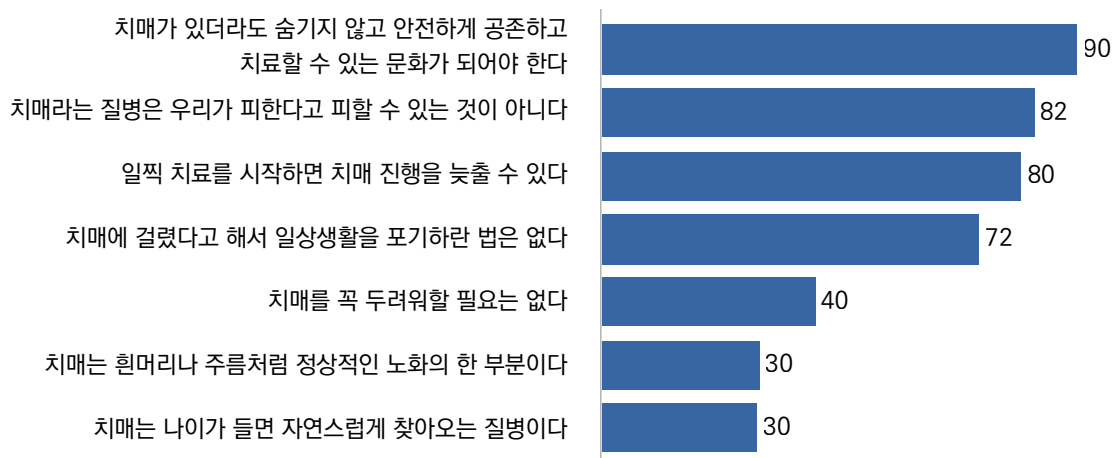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치매 관련 인식조사', 2019.05.20.(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2019.05.15.~19)

## ● 그러나, 치매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인식(40%)도 상당수 존재!

- 치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치매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40%)거나 '치매에 걸렸어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인식(72%)이 높는데, 이는 치매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극복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 또 치매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질병'(30%)이라는 인식, 즉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적 태도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그림] 한국사회에서의 치매 관련 인식 2 (그렇다 비율)

(%)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치매 관련 인식조사', 2019.05.20.(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2019.05.1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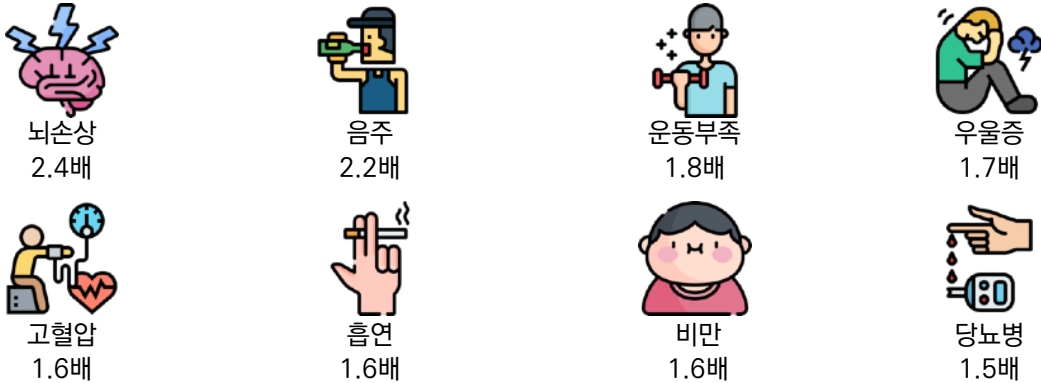
5



## 치매 위험도 음주시 2.2배 증가!

- 중앙치매센터의 치매 가이드북에 따르면, 치매를 높이는 위험 인자 중 '뇌손상'이 2.4배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음주' 2.2배, '운동 부족' 1.8배 등이었다.
- 즉 음주가 우울증, 고혈압, 흡연 보다도 더 치매 위험도를 높인다.

[그림] 치매 위험 인자 요인



\*자료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2020.09.23.

### ● 치매를 줄이기 위한 333법칙!

- 치매를 줄이기 위해서는 333 법칙이 있는데, '3권'(운동, 고른 식사, 독서)을 즐기고, '3금'(절주, 금연, 뇌손상 예방), '3행'(건강검진, 소통, 치매 조기 발견)을 챙길 것을 권하고 있다.

[그림] 치매 예방을 위한 333 수칙



\*자료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2020.09.23.





## 시사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노인 관련 질병은 무엇일까? 단연 치매이다. 옛날에는 ‘노망났다’, ‘망령들었다’고 불리웠던 치매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암, 뇌졸중보다 더 두려워하는 질병이 되었다. 노인 인구가 적었고 수명이 짧았던 과거에는 치매 환자도 적을 수 밖에 없었지만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환자가 급속하게 늘 수 밖에 없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배 증가했는데, 치매환자는 3.3배가 늘어 치매환자 증가속도가 고령층 인구 증가 속도보다 2.4배가 빠르다.

치매 환자의 문제는 사회 다른 분야보다 교회에서 더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올 해들어 만19세 이상 국민 가운데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29%인데, 기독교(개신교)는 38%<sup>1)</sup>일 정도로 교회의 고령화 정도는 심각하다. 교회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교인 가운데 치매 환자는 증가한다. 실제로 교회에 잘 나오시던 어르신 이 치매에 걸려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듣는다. 그러므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돌봄은 앞으로 목회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목회적 주제가 될 것이다. 이에 치매와 관련하여 세 가지 목회적 이슈를 제안한다.

첫째,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심방 예배가 요구된다. 치매에 걸리면 환자가 예배드릴 상황이 되지 못한다. 가족들은 치매 가족을 다른 교인들에게 노출시키기 꺼리는 마음이 들고 치매 가족으로 인해 예배를 방해하거나 교인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염려가 되고 한편으로 치매 가족을 돌봐야 하므로 교회에 가지 못한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해 목회자가 자주 방문하여 심방 예배를 드릴 때 치매 환자와 가족은 예배가 주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둘째, 치매 가족에 대한 위로가 필요하다. 가족이 치매 판정을 받으면 돌보는 가족(대개의 경우 주부)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라는 심정이 자주 든다고 한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로 인해 피곤할 때, 다른 가족들이 도움을 주지 않을 때는 화가 나기도 하며 환자에게 충분히 잘 해 주지 못할 때는 죄책감이 들기도 한다. 그 외에도 우울, 슬픔, 낙담, 무기력, 의욕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심한 경우 불안, 신경쇠약, 불면, 식욕저하, 심지어 자살까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로 인해 사회 활동을 점차 하지 않게 되고 친구나 의지할 만한 사람이 줄어들어 외롭고 혼자인 것 같은 느낌도 가지게 된다.<sup>2)</sup> 이런 정서적 불안을 목회적 돌봄으로 위로하고 덜어주는 것이 가족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재정 여건상 대형교회에서 가능할 수 있지만, 치매 환자를 위한 요양시설 혹은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만한 일이다. 치매 환자를 가정에서만 돌볼 경우는 주거와 식생활만 해결해 주는 수준에 그치게 되고 치매 환자의 행복은 염두에 두지도 못한다. 교회가 치매환자 돌봄시설을 운영할 경우 치매 환자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족과 환자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가족들은 돌봄의 고통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공공 돌봄서비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된 교회가 다른 기관보다 더 잘 할 수 있다.

치매 환자의 수가 적고 여성의 사회 활동이 적을 때는 치매 문제가 개인과 가정에서 커버가 됐지만, 이제 치매는 더 이상 가정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고 공동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슈가 되었다. 교회는 치매 문제를 목회적, 선교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교회의 대 사회적 책임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1) 한국갤럽, ‘갤럽리포트’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전국 만19세 이상 1500명, 면접조사, 2021.03)  
 2)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돌봄사전’([https://www.nid.or.kr/info/new\\_guide\\_list9.aspx](https://www.nid.or.kr/info/new_guide_list9.aspx))에서 인용.

## 최근 언론 보도 통계

### 1. [한국 노인의 힘겨운 삶]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 3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 그만큼 한국 노인의 삶 힘겨워!

### 2.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교]

전체기업 중 0.9%의 대기업(중견기업포함)이  
전체 기업 이익의 75%를 가져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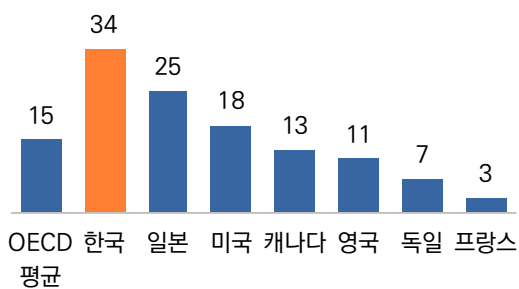
1. 한국 노인의 힘겨운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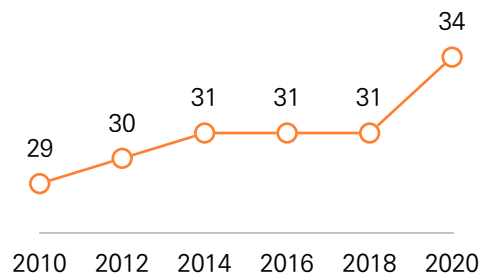
##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 3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 그만큼 한국 노인의 삶 힘겨워!

- 2020년 OECD 회원국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 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2010년 이후 한국 고령층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2020년의 경우 OECD 평균 15%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인 복지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해 그만큼 고령층이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020년 OECD 주요국 65세 이상 고용률 (%)



[그림] 한국 연도별 65세 이상 고용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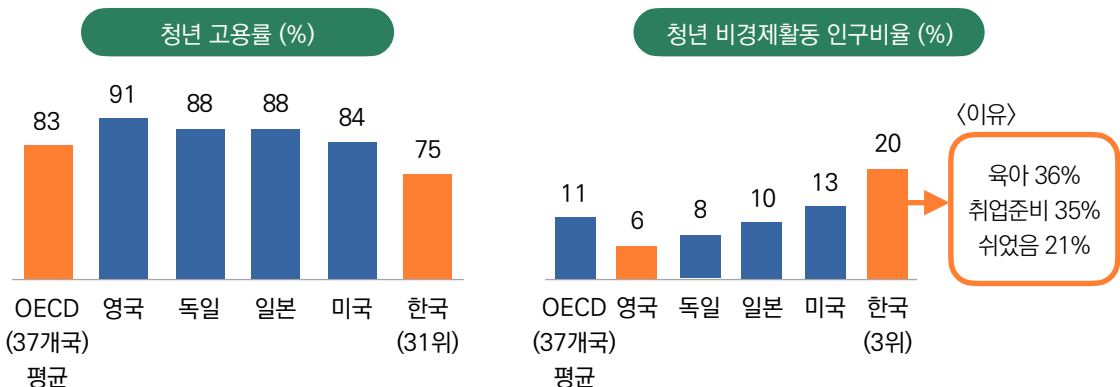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OECD statistics data, '2020 OECD employment' 중앙일보, 2021.11.29. '나이 들어 고달픈 대한민국...빈곤율도 고용률도 세계 1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7624#home>)  
\*\*고용률 :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

## ● 한국의 청년 대졸자 고용률, OECD 37개국 중 31번째로 낮아!

-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회원국의 25-34세 청년 대졸자의 고용률을 분석한 결과, 2020년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75%로 37개국 회원국 중 31번째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83%이다.
- 또한 한국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로 OECD 국가에서 3번째로 높았는데, OECD 평균(11%) 보다 2배 가까이 높다. 비경제활동 청년의 주요 활동으로는 '육아/가사'가 36%, '취업 준비' 35%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청년 10명 중 2명은 아무일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020년 OECD 주요국 청년(25~34세) 대졸자 고용률 vs 비경제활동 인구비율



\*자료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청년 대졸자 고용률 75.2% OECD 37개국 중 31위', 2021.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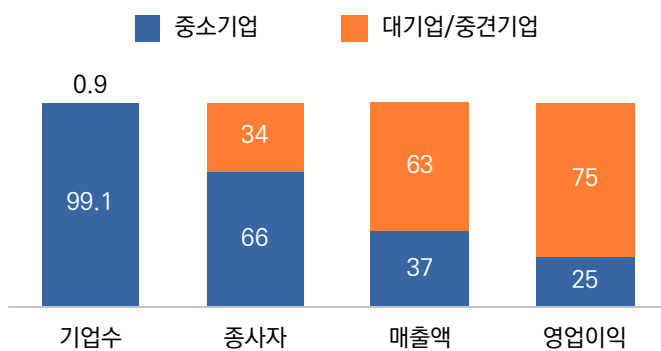
2.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교



## 전체기업 중 0.9%의 대기업(중견기업포함)이 전체 기업 이익의 75%를 가져간다!

- 현재 우리나라 기업 중 대기업(중견기업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은 0.9%인데, 이 대기업이 전체 기업 매출액의 63%를 차지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75%를 갖고 가고 있다. 역으로 99%의 기업(중소기업)이 전체 이익의 겨우 25%만 갖고 가는 현실이다.
-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현황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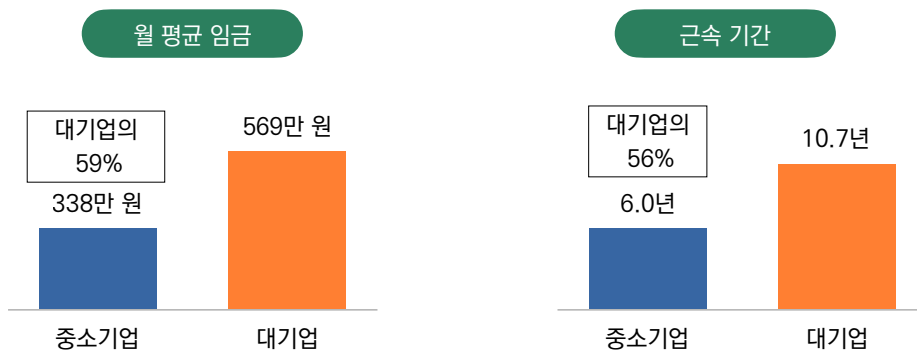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아시아경제, 2021.11.30., '99%가 가져가는 몫은 겨우 25%.. 상생 이끌어야', (<https://www.asiae.co.kr/article/2021112609560655713>)  
 \*\*통계청 : 통계청, '2019년 영리법인통계 결과', 2020.12.14

### ●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대기업의 59% 수준!

- 2019년 기준 중소기업(상시 근로자 5-499인 근무 기업) 근로자의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338만 원으로 대기업(500인 이상)의 569만 원의 59% 수준이었다.
- 근속 기간 역시 2019년 기준 중소기업은 평균 6.0년으로 대기업의 10.7년에 비해 56% 수준으로 짧았다.

[그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월 평균 임금과 근속 기간 비교(2019년 기준)



\*자료 출처 : 연합뉴스, 2021.03.14., '20년간 대/중소기업간 임금/근속기간 격차 확대',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2131100030>)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476호\(2021년 12월 2주\) - 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이유 등](#)

[전국지표조사\(4개 주요 조사기관\) 리포트 제57호 \(2021년 12월 2주\) -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등](#)

[국민 10명 중 6명 "내 정치 성향 안 밝힌다"](#)

뉴스프리존\_2021.12.03.

사회  
일  
반

[사망자 31%·확진자 27% 위드 코로나 후 나왔다](#)

헤럴드경제\_2021.12.10.

[한국인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 세계 3위...연간 88kg](#)

연합뉴스\_2021.12.02.

[5년 후, 의외로 사라지는 직업 vs 뜨는 직업](#)

동아일보(29street)\_2021.12.02.

[자녀 결혼비용 부모책임?... "동의안해" 비율 10년새 27.2%p 증가](#)

연합뉴스\_2021.12.08.

[다른 유형의 사람과 간부 맺을수록 내 삶의 행복·만족도 '쑹'](#)

한국일보\_2021.12.04.

[코로나속 디지털 성범죄 급증...작년 1만6866명 적발](#)

매일경제\_2021.12.07.

[2046년 국내 대학 절반 이상 사라져...청년세대 지역갈등 우려](#)

연합뉴스\_2021.12.05.

[경기도민 70% "가상현실 활용 수업 '재능계발' 등에 효과적"](#)

연합뉴스\_2021.12.06.

[경기도 1인 가구 30년새 10배로 증가...행복·만족도는 낮아](#)

연합뉴스\_2021.12.08.

인  
구

[한국이 100명 사는 마을이라면... 50년 후엔 73명, 그 중 아이는 5명뿐](#)

조선일보\_2021.12.09.

[이미 지난해 '인구 정점'...정부 예상보다 8년 앞당겨져](#)

한겨레\_2021.12.09.

[文 정부 5년 만에 더 빨라진 인구 충격... 2025년 합계출산률 0.52명 시대 온다](#)

서울경제\_2021.12.09.

경제

[30대 그룹 임원중 69년 이후 태어난 X세대·밀레니얼세대 46.8%](#)

연합뉴스\_2021.12.06.

[‘중산층 부자’ 총자산, 1년새 1.5억 늘어… 78% “금리 5%대면 부동산 구매 포기”](#)

동아일보\_2021.12.06.

[작년 일자리 ‘역대 최고’ 늘었지만… 절반이상이 60세 넘어](#)

국민일보\_2021.12.08.

국제

[미국의 최대 적 누구냐 물었더니… 58%가 찍은 이 나라](#)

조선일보\_2021.12.05.

[코로나 이후 빈부격차 더 커졌다 “상위 10%가 세계 자산 76% 차지”](#)

조선일보\_2021.12.08.

[“아시아내 영향력, 美 1위 - 中 2위 - 日 3위 - 韓 7위”](#)

동아일보\_2021.12.07.

기독교

[선교사 10명 중 7명은 코로나에도 선교지 지켰다](#)

국민일보\_2021.12.08.

[교회는 성범죄 목회자 징계 조문이 없다](#)

한겨레21\_2021.12.03.

[앱으로 성경 읽기 팬데믹 이전보다 24% 늘었다](#)

국민일보\_2021.12.09.

\*기획기사 <행복한 노후 탐구 시리즈> - 조선일보

1. 은퇴하고 집 줄여도… 부부에겐 각방 필요하다 2021.11.19.
2. 부부 10쌍 중 6쌍은 따로 잔다… 이유는 바로 2021.11.20.
3. 누워 사는 100세 무의미… 건강하려면 ‘내가 먼저’라는 생각 가져야 2021.11.25.
4. 황혼이혼 도장 찍었더니 내 연금이 반쪽됐다 2021.11.30.
5. 노부부의 황혼 이혼…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 2021.12.04.

#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동행한빛교회, 만나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이름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불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 GoodTV, IFJ 가정의 힘(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영관, 고재환, 고현권,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노석,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장민, 송섭, 송으뜸, 신명자,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우애라, 유성민,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춘봉, 이현, 이현구, 이현식, 이효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우성, 장형철, 전응림, 전치영, 정부활, 정용철, 정중섭, 정준, 정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차용현, 최명영, 최상도, 최상헌, 최용기, 최은아, 최준, 최준혁, 최현갑, 한재웅,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혜숙, 황태기(가나다순)

**신규 후원** | 신광교회, 고영수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mailto: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mailto: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mailto:jy011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 MOU 기관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